

이덕일의 '역사의 창'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1995년 8월 15일 당시 김영삼 문민 정부에서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했다. 당시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필자는 그 건물 일부를라도 일제의 학살 만행이 발생했던 수원 제암리 같은 곳으로 옮겨 '일제 만행 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겪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었으며 나아가 현재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원동력도 일제강점기 덕분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희한한 주장은 그들의 관점을 보면 바로 이해된다.

일제강점기 때 개벽사에서 발행하던 '별건곤' 1932년 11월호는 당시 조선 제일의 갑부들로 민영휘, 이항구, 고희경 등을 꼽고 있다. 원명이 민영준인 민영휘는 매천 황현이 '오하기문'을 통해 왕비 민씨의 친척 가운데 세 도적 중 한 명으로 꼽은 사람이다. 게다가 나라 팔아먹은 공로로 총독부로부터 자작의 작위

와 막대한 은사금을 받은, 친일 매국적(賣國賊)이다. 이완용의 둘째 아들 이항구도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부친과 함께 일제에 공을 세운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의 한 명으로 수록된, 대를 이은 친일 매국적이다. 고희경은 1907년 이완용, 송병준 등과 함께 정미7적(七賊)으로 규탄받고 매국의 대가로 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고영희의 아들이다. 고희경은 이후 백작으로 승급된다.

이런 소수의 친일 매국노들이 잘 먹고 잘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이고, 이들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니 나온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그래서 역사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친일 매국노(賣國奴)들이 일제에 바라보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에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옥사하고, 신음하던 일제강점기가 태평성대로 보이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1948년 건국절 주장이다. 1919년 3·1혁명 직후인 4월 11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리에 따르면 세계 민족 해방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독립 전쟁은 반란으로 전락한다. 동시에 해방 공간에서 미군정에 의해 다시 되살아난 친일 매국 세력들이 건국 공로자로 둔갑하니 건국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1948년 건국설'을 반대하고 '1919년 건국설'을 지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 7월 17일 제헌절 때 '제헌 70년' 운운하는 것만이 위남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1948년 정 부 수립과 동시에 이 나라에 헌법이 처음 생겼다는 논리다. 그럼 그간 대한민국은 헌법도 없던 나라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무엇인가? 이 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이다'이며,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新敎), 인륜,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이라는 것이다. 현행 헌

법에 비추어 전혀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되었지만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다는 상호 모순이 그대로 통용되는 나라. 그러다 보니 식민지 근대화론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전국 각지에 일제식 건물 몇 채만 남아 있으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사는 진보적 관점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고대사는 조선총독부의 관점으로 보고, 조선 후기는 이완용이 마지막 당수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의 관점으로 보는 이상한 현상이 통용되는 것이다.

이 나라 각지에는 치열한 독립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다. 전국 각지의 일제식 건물들을 독립전쟁관으로 재단장한다면 모를까, 허물어져 가는 일제식 건물 몇 채가 무슨 근대 문화 역사인가?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찾았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김영삼 정부는 외화벌이에 역행한 것인가? 하나의 잣대로 사물을 보는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社說

이전 완료 혁신도시 이전 정주여건 개선을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 기관 가운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 최근 청사 이전을 완료하면서 16개 기관의 입주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이다.

농기평은 옛그제 빛가람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농림 식품 과학기술 육성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농림 식품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력 육성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농기평의 신청사 이전 직원은 97명이다.

농기평의 이전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분야 4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 5개, 국립전파연구원 등 방송 통신 4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 예술 2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16개 공공 기관이 정착하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이들 기관의 근무 직원은 7000여 명에 달한다.

공공 기관 이전 작업은 끝났지만 빛가람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교육·주거·의료·여가 활동·교통 환경 등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빛가람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48.9점으로, 충북 혁신도시에 이어 전국 열 곳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 이전 공공 기관 등이 요청한 44건의 건의 사항 처리도 최근까지 10%만 완료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공동 발전기구 조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복합혁신센터와 발전재단 설립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시도는 공공 기관 이전 완료와 한전 공사 등 2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16개 공공 기관이 정착하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이들 기관의 근무 직원은 7000여 명에 달한다.

반려동물 사랑도 좋지만 페티켓은 지켜야

광주 지역 내 반려견 수는 19만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때 일부 주민들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반축을 사고 있다. 또한 동물 배설물 방치로 인해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놀이터와 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시설에서는 치우지 않은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보 취재진이 옛그제 둘러본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인근 황룡 친수공원에서 두 주말을 맞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상당수 시민들이 분변 봉투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가 배설을 해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뒀다. 공원 내 500m 구간에서 개 배설물이 발견된 장소는 10여 곳에 달했다.

이들 반려동물의 분변을 방치하면 위생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 누구나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는 1천만 반려동물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들의 시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과태료를 떠나서 자신의 반려동물이 배변을 했을 때 뒤처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동물 주인들의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반려동물의 배변까지 책임지는 페티켓은 애완인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다. 대변은 비닐봉투에 담고 소변에는 페트병의 물을 뿌려주면 된다.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제도 활동과 함께 배설물을 방치하는 비양심적 행동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시설에는 지자체에서 배설물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 적합한 분변 처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의료칼럼

광주 3·1 운동과 광주제중원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광주 지역 3·1 운동에서 광주기독병원, 즉 광주제중원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3·1 운동과 관련하여 광주제중원 직원 8명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당시 광주제중원 규모를 볼 때 원장인 윌슨 선교사를 포함해 직원이 약 2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선교사들을 제외한 전 직원이 3·1 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그 해 2월 각도의 책임자들이 서울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전남과 광주의 대표로 서울 청량리에서의 회합에 참석한 최홍중 목사는 광주 만세 운동에 관한 모의를 끝내고 돌아오던 중 서울

의 3·1 운동에 합세 인력거를 타고 파고다공원을 왕래하면서 만세 시위를 하다 검거돼 1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최홍중 목사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독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어쨌든 나로부터 독립 사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최 목사는 1910년대 현재 봉선동쪽에 위치했던 광주나병원 책임자를 맡았으며, '결인과 나환자의 아버지'로 불린 애국지사였다.

광주제중원에서 회계원으로 근무하던 황상호는 3월 10일 광주 만세 시위에 참가한 바도 있었지만, 이 독립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민중 계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조선독립 광주신문'을 발행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남자 간호사 홍덕주, 약제사 장호조 등과 함께 병원에서 쓰던 등사판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사장 명의를 황송우(黃松友, 황상호의 가명)였다.

조선독립 광주신문 제1호의 주 내용은 전국 만세 시위의 소식과 고종 독살설, 파리 강화 회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등 국내외 정세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독립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하자는 호소였다. 더불어 3월 10일에 있었던 광주 지역 만세 운동 광경을 서술하였다. 제1호는 3월 11일에 300부가 인쇄되었는데, 홍덕주와 장호조 등에 의하여 3월 13일 광주 큰장터 및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3월 15일 조선독립 광주신문 제2호를 발간, 3월 18일 광주 큰 시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제4호까지 발행하다가 일경에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황상호는 징역 3년을, 홍덕주와 장호조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주제중원 간호사인 김금서·김안순·김화순, 서기 최경동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지역 만세 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최경동은 8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나병원과 애양원에 근무하면서 원생들에게 항일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월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주 3·1 만세 운동에서 광주제중원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1919년 3월 10일 만세 시위에서 수피야 학교, 숭실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제중원 등 기독교 연합 세력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최홍중 목사 등이 서울 지역과 연합함으로써 일찍이 만세 운동에 대한 준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3월 13일 만세 시위의 경우 광주제중원에서 황상호 등이 '조선독립 광주신문'을 자체적으로 발행해 배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목포, 영암 등지의 만세 시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남 지역 만세 시위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신문 발행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스스로 확보하고 만세 시위를 확대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1 운동은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큰 봉우리라 할 수 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100년 전 광주제중원 직원들이 조선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희생했던 밀알 정신을 계승, 이제 최초로 넘어 최고를 향한 병원, 광주·전남 대표 병원으로, 개원 2세기 새물결 도약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기고

설날 덕담,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국민 모두를 설레게 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설날이 되면 아들, 손자, 며느리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주고 받으며 서로 뜻 다한 정을 나눈다.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도 올린다. '만수 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나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벽두에 좋은 덕담 한마디를 주고받는 풍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그런데, 설날 덕담 때문에 고향에 가기 싫어하고 가족 친지들과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점점 많다고 한다. '대학은 어디 들어갔나?', '취직은 언제 하나?', '결혼은 안 하나?', '회사

큰 회사냐?' 등등.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깔끄러운 말들을 들으며 자칫 마음의 상처를 받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가시 돌친 질문이나 잔소리, 쓴소리보다는 이번 설날만큼은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덕담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겹게 산다. 초·중·고교시절부터 대학 입학·취업 등 사회 반열에 오르기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설상 취업이나 결혼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은 무척이나 버거운 현실이다. 처한 상황이 모두가 가파른 산 넘어 산이다. 오죽하면 청년들 스스로가 5포·7포 세대라는 말까지 하겠는가?

이럴 때 어르신, 부모님, 가족, 친지들이 '힘을 내라', '희망을 가져라', '잘 해낼 것이다'라는 덕담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전남도 인구는 2004년에 200만 명, 2017년 3월에 190만 명이 무너진 후 계속 줄고 있다. 특히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7600명씩이나 감소하

고 있다.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것은 대부분 일자리 때문이다. 자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다수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결론인데, 필자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올해 전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신 산업 분야 일자리를 3만 5000개를 만들며, 민선 7기 전남형 혁신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 정책으로 혁신도시 내에 청년들의 창업을 도울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 근로 장려금이나 청년 구직수당 같은 정책들이 추진된다. 인제 양성을 위해 청년 관광 기획자 양성 같은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된다.

청년들의 취업이나 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청년 주거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생활에 보탬이 될 희망 디딤돌 통장 같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이 추진될 방침이다. 각종 청년 지원 정보를 잘 파악하고 기대해도 될 듯하다. 전남도의회는 청년들의 구직이나 창업을 지원할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정

년 정책 발전 감담회나 소통 토론회도 열며 미래 사회 주역이 될 청년들을 위해 법적·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있다.

기회와 희망은 있다. 특징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고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내라고 진심이 담긴 격려와 위로로 축 쳐진 어깨를 잡아주고 불안한 가슴을 안아 주어야 한다.

설에 고향을 찾는 젊은이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단 한 번도 쉽고 편안한 시대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지혜와 슬기로 잘 이겨냈다. 자신을 더욱 엄중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강인함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 자신이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할 길 기대한다.

만복(萬福)을 가져다 준다는 황금돼지 기해년이다. 이번 설날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세운 인생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득 담아가는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1945년이니 벌써 74년 전의 일이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이라는 책이 출간된 것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인 칼 포퍼는 아돌프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침공 소식을 듣고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그는 전체주의로 대표되는 '닫힌 사회'와 혁명, 그리고 완벽한 사회를 주장한 철학자들을 비판해 주목받았다.

포퍼는 '열린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은 점진적인 개선을 믿고, 토론이라는 수단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며, 개개 인간의 불안정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개인이 이성

닫힌 사회

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소통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재벌 개혁, 만연한 불로소득, 국민연금 개혁, 최저 임금, 노동 시간 유연화, 광주형 일자리 등을 다뤄야 하는 경사노위의 향후 논의 자체도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정치를 지향하는 문제인 정부에 서마저도 이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

다. 분석도 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노동계의 '닫힌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듯하다.

칼 포퍼는 "우리는 자유와 함께 진보가 의존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들을 지키고 강화함으로써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좀 더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협의를 통해 대다수가 공감할 만한 방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인가.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